

제 1 교시

독서론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요새 점차 진화하고 있는 복병, 독서론을 대비하기 위한 평가원+교육청+수특 자료입니다.
- 이용하거나 배포하실 때 제작자의 허락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오류, 수정사항 등은 오르비 미적과탐문학과소녀(1169129)에게 제보 바랍니다.

<2014학년도 예비시험 B형 29~30번>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할 때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혹 일을 했던 경험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 노니는 중에 구하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또 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묻는다면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허세를 부리거나, 어지럽게 글을 읽고, 억지로 자구를 뽑아내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에 뜻이 없는 자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 없다. (중략)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 [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곳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켜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라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

1.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어야 한다.
- ②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3.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5.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6~8]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①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6.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7.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8. 윗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 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자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10.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11.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능숙한 독자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다. 배경지식은 독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경험과 지식의 총체이다. 능숙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후, 이를 활용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런데 능숙한 독자라도 배경지식이 부족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다. 이 경우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한다.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준비할 때 읽을 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신의 독서 역량을 점검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독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독서 전략을 세운다. 그런데 막상 독서를 하다 보면 글의 특성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독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능숙한 독자는 달라진 독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하고 독서 행위를 조절한다. 그리고 독서 후에는 자신이 독서의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 독서를 했는지를 성찰하여 평가한다.

우리 선조들도 경서를 읽으려는 독자에게 일정한 능력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를 읽는 목적은 글에 담긴 이치를 통해 모든 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경서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독서 전략을 운용했다. 그 후에 독자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적용했고,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운용했다.

능숙한 독자는 한 편의 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향한다. 꾸준히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읽을 독서 목록을 정리하여 자발적이고 균형 있는 독서를 생활화한다. 그리고 독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자신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2. 윗글의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을 읽기 전에 읽을 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독서 능력을 점검한다.
- ② 글을 읽는 도중에 글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 ③ 글을 읽는 도중에 독서 환경이 변했다면 변한 환경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으로 수정한다.
- ④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글 읽기를 지양한다.
- ⑤ 글 읽기를 마친 후에 독서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는 독서를 했는지 평가한다.

13.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너는 모쪼록 지금부터 경전을 읽되 미리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하고, 읽기가 이미 완숙하게 되면 또 반드시 **활법***을 써서 마음을 활발한 경지에 두어 모든 선입견을 놓아 버린 평정한 상태로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될 것이다.

- 정조, 『고식』 -

* 활법(活法) : 독창적인 생각으로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

- ①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운용해야 할 독서 전략을 밝힌 것이로군.
- ② '반드시 활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독자가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적용할 독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로군.
- ③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글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제안한 것이로군.
- ④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담긴 이치를 깨달으라고 권유한 것이로군.
- ⑤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되는 것은 독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로군.

14.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과학이나 기술 관련 책이었어. 앞으로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분야인 인문이나 사회 관련 책도 열심히 읽어야겠어.

- ①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균형 있는 독서를 계획하고 있다.
- ② 독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 하고 있다.
- ③ 지금까지의 독서 생활이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독서의 생활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파악하여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이 자신의 독서 역량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저자와 독자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저자가 글로 구성된 메시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저자가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 등을 예측하고,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글을 쓸 때 저자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자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 나아가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즉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5.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며 읽는 방식
- ②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
- ③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
- ④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 ⑤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방식

1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산의 바다 안에는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나는 이에 널리 섬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를 만들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 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 다만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 정약전, 『자산어보』 서(序)-

- ① ㉠에서는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17.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심리학자 바틀렛은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 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

- ① 독자의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④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 ⑤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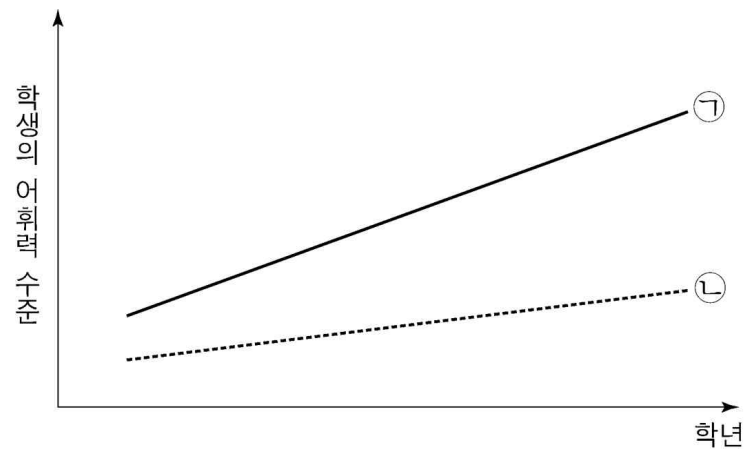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19.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책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평가 받는다.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독서에서는 실용이 중시되었으며 정조에게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옛날을 바탕으로 오늘을 비추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며 역사서에 경전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실용에 무익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고 여겨 평생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과 누워서 편히 보도록 설계된 책상을 금하였다.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조는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사법(死法)으로 규정하여 멀리하였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성인의 뜻을 잘 헤아리되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자세라 보았다.

정조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으며,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大要)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을 혼자서 읽으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조는 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자기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어 나갔다.

2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 ②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 ③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고 읽는 것이 좋다.
- ④ 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파악해야 한다.
- ⑤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논어』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닥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었다.” 하고는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 홍길주, 『수여방필』 —

- ① 경전을 ‘자기 말처럼 다 외웠’다는 점에서 ㉠는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는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였’다는 점에서 ㉡는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논어』 중에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는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조의 독서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게 해 주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 ①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고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 ②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 ③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 <보기>는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글을 읽으며 우선 글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갔다. ‘장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나니 문맥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다.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대신하여’와 달리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생소한 단어는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

- ① ㉠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는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 ② ㉡ :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③ ㉢ :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 ④ ㉣ :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 횟수가 적었을 것이다.
- ⑤ ㉤ :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26.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가]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을 때
- ②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을 때
- ③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 ④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
- ⑤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독자를 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독서 교육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독서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글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의미 구성에 활용하는 경험과 지식을 ‘배경지식’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내용 배경지식은 글의 화제나 주제와 관련해 이미 독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고, 형식 배경지식은 글의 구조나 담화 관습 등 글의 구성과 표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 의하면 글의 의미 구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독자는 읽기 전에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담긴 내용이나 글의 구조 등을 예측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상적 정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글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읽는 중에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 독자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여 이후 다른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글을 모두 읽은 후에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하는데, 그렇게 재구성된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된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글과 관련해 연상한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글의 화제나 주제와 관련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떠올린 후, 이것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상하위 개념으로 위계화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가 글과 관련해 자신의 인지를 미리 조직화하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글의 내용도 정확히 구조화할 수 있다.

한편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연구 초기에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되는 의미가 다른 이유를 독자가 지닌 배경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자의 독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독서 상황에서 배경지식이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배경지식의 양 이외에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7.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독자와 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 ② 배경지식은 읽기 전, 중, 후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 ③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글을 읽을 때에 배경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을 잘못 활용하면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28. 다음은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 생각의 일부이다. 이를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을 책이 『서양 건축사의 이해』야. 제목에 ‘○○사’란 말이 들어간 글은 대개 내용이 시간순으로 구성되니, 이 책도 그렇겠군. 이제 서양 건축과 관련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 ‘로마네스크, 고딕, 샤프트르 대성당…….’ 이 중에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서양 건축 양식의 하위 개념에 배치하고, 샤프트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의 하위 개념에 배치하자. 이제 본문을 읽어 보자. “고딕 양식은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며, 대표 건축물은 샤프트르 대성당이다.” 아, 샤프트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니라 고딕 양식이었구나. 꼭 기억해 두자. 음,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다는 말로 볼 때 고딕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화려하겠군. 또 고딕 양식의 종교 건축물은 대부분 색유리를 활용했다고 했으니, 책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딕 양식인 아미앵 대성당에도 색유리가 활용되었겠군.

- ① 책 본문에 있는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며’를 통해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행 시기를 파악한 것은 배경지식을 활용해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한 것이로군.
- ② 책을 읽으며 샤프트르 대성당이 고딕 양식이라는 정보를 확인하여 기억하겠다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배경지식을 수정한 것이로군.
- ③ 서양 건축과 관련하여 떠올린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서양 건축 양식의 하위 개념에 배치한 것은 읽을 글과 관련한 자신의 인지를 미리 조직화한 것이로군.
- ④ 색유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앵 대성당의 특징에 대해 추측한 것은 내용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 것이로군.
- ⑤ 책 제목에 있는 ‘건축사’라는 말을 바탕으로 읽을 글의 전체 구성을 추측한 것은 형식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이로군.

29.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종종 읽을 글과 관련 없는 배경지식까지 활성화하여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렇게 되면 독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독서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심화하게 된다.

- ① 독서 능력이 뛰어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해 자신이 지닌 배경지식의 양을 점검한다.
- ② 독서 능력은 독서 목적에 맞는 배경지식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 ③ 독서 능력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를 조성해야 발휘될 수 있다.
- ④ 독서 능력을 기르려면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 ⑤ 독서 능력은 독서 방식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향상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 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 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 ③ 독자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 ④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 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31.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다.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에 성악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했다.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 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과 ㉡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32. 윗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② 독서 모임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③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동아리를 통해 심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군.

<2024학년도 수능특강 14p>

[33~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용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독서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대신 생계와 취업의 요령, 여행이나 연애,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를 권하는 것이 최근의 세대이다. 진정한 교양인이라면 시중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한 책, 실용을 위한 책, 처세술을 담은 책을 넘어 다양한, 기왕이면 대가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고 표현한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의 목록에는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를 획득한 **고전(古典)**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의(廣義)의 고전은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예술 작품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어 수없이 되풀이 읽히는 저술을 가리킨다. 고전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그가 속한 문화권과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전이 세월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과 세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의 지위를 유지한 책들에는 인간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33. **고전(古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이다.
- ②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 ③ 독자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 ④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 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34. 윗글과 <보기>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비가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반드시 성현의 일과 행실과 훈계를 생각해서, 이를 끌어와 준칙으로 삼아 전도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속인은 한 글자도 읽지 않는지라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런 것은 죽히 말할 것도 못 된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과거 시험 보는 글에다 배운 글귀를 써먹을 뿐, 제 몸에도가는 한 번도 시험해서 그 효험을 보려 들지 않는다. 몹시 슬픈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고서를 여러 번 읽어 입만 열면 인용하고 끌어오는데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비루하고 아침을 잘하며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쓴다. 앞서 인용하여 끌어온 것은 단지 말을 꾸며대는 거리로 삼은 것일 뿐이다. 이 같은 독서는 비록 많이 한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 이덕무, 『사소절』 중 「묘습」 -

- ① 독서의 양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② 독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과거의 독서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읽은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독서가 실용과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특강 46p>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다. 그저 눈으로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적힌 종이를 잠시 뒤적이다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그러한 독서는 의문을 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17세기의 박세채는 『독서천설(讀書淺說)』에서 책을 읽고도 의심을 품을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병이라고 하면서 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따져 보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의문의 심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앎에 이르는 것, 즉 ‘치지(致知)’라고 말하면서 치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격(窮格)’과 ‘완미(玩味)’를 제시하였다. ‘궁격’이란 의문을 묻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과 몰두의 공부를 의미하고, ‘완미’란 책에 담긴 뜻을 천천히 되새기고 음미하며 차근차근 알아 가는 방식의 공부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성호사설(星湖僊說)』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 있어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질서(疾書)’를 강조하였다. 질서란 책을 읽다가 그때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두는 방식의 독서를 말한다. 이익은 송대(宋代)의 학자인 장재가 책을 지을 적에 집 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간혹 밤중에도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가 메모를 한 것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장재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이 경전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록해 둔 것을 바탕으로 『사서삼경질서(四書三經疾書)』, 『근사록질서(近思錄疾書)』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또한 이익은 『논어질서(論語疾書)』 서문에서 주자의 책을 읽으며 조금도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주자의 해설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익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 갔은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견주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과 달리,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혼자 길을 갈 때에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은 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택(麗澤)’이라고 일컫고, 사제 간, 문생 간의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여 깨달음을 투철하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토론이라는 심화 단계를 통해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바람직한 독서 태도로 언급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 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문자를 해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의 구절구절 담겨 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책을 통해 진정한 앎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독자는 책 속으로 들어가 책의 구절구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의문을 갖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몰두하는 (㉠), 책에 담긴 뜻을 되새기고 음미하는 (㉡),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 등을 실천함으로써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하였다.

- | | | | |
|---|----|----|----|
| | ㉠ | ㉡ | ㉢ |
| ① | 궁격 | 질서 | 완미 |
| ② | 궁격 | 완미 | 질서 |
| ③ | 질서 | 궁격 | 완미 |
| ④ | 완미 | 궁격 | 질서 |
| ⑤ | 완미 | 질서 | 궁격 |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릇 읽는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이 아예 없다가, ㉠점차 조금씩 의심이 들게 된다. 한참 지나면 구절구절 글자글자마다 의심나지 않음이 없다. ㉡의심이 있다가 의심이 없는 데에 이르러야 비로소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의심 없던 것이 어찌 참으로 시원스레 두루 통해서 그랬던 것이겠는가? 장자가 말한 ‘의심이 없는 곳에서 의심을 내어 살핀다.’는 것이 대개 이를 이름이다. ㉣배우는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사람은 의심의 유무를 갖고 자기 공부가 진보하였는지 진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곤 하였다.

- ① ㉠은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는 책을 읽으면서 의심을 심화하고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치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는 책을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는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는 책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공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024학년도 수능특강 282p>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때,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 처리의 과정은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의 과정, 즉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글을 읽는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핵심이나 핵심 문장을 찾고, 아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다 읽은 후에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글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기 전부터 글을 다 읽은 후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해 내지만, 그러한 전략을 알지 못하거나 잘 적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는 결국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

글의 의미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독자는 각각의 처리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각 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그것은 그 단계에 적용한 독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 할지라도 모든 단계에서 항상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는 자신이 선택한 독서 전략을 통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독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초인지*가 동원된다. 능숙한 독자는 초인지에 의해,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의미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의 인지 작용은 비가시적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독자가 독서 후에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심리학자들의 분석이나 첨단 장비를 통한 뇌의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의 개입을 통해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외부의 개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가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한 활동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다.

* 초인지 :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발견·통제하는 정신작용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독서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독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단계를 나눈 후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이 외부 개입 없이 향상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38. ㉠과 관련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능숙한 독자는 ㉠의 선택과 활용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 ② 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는 ㉠의 활용에 차이를 보인다.
- ③ 정보를 처리하는 각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이 필요하다.
- ④ 독자의 초인지는 ㉠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⑤ 독자가 선택한 ㉠은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9.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가 싨마오의 『허수아비 일기』를 읽었다. 처음 접하는 작가의 책이라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들이 가장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작가, 사막을 떠나 카나리아섬에 정착한 동방의 집시, 싨마오가 전하는 유쾌한 일상과 가슴을 적시는 감동!”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허수아비’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급한 마음에 서문을 건너뛰고 본문을 읽어 나갔는데, 책을 다 읽도록 허수아비에 관한 얘기는 찾을 수 없었다. 다 읽은 책을 뒤적이다 서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핵심어들을 종합해 보니, 홀로 보리밭을 지키는 허수아비가 참새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허수아비가 싨마오였음을 깨달았고, 허수아비 같았던 그녀의 삶과 대비되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서문이나 목차 등 작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장치들을 꼼꼼히 살피며 침착하게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① 책을 읽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독서 전략을 활용하였군.
- ② 책을 읽는 중에 제목과 관련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군.
- ③ 초인지에 의해 독서 전략을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군.
- ④ 책의 서문에 나온 핵심어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였군.
- ⑤ 책을 읽은 후에 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보았군.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독서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반복하여 읽어 글에 마음을 깊이 붙여야 한다. 어느 순간 마음에 얻는 바가 있으면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니 그 뜻을 글자에만 의지하지 말라.
- 기대승

(나) 독서를 통해 얻는 것 중에 최상은 정신적 기쁨이요, 그다음은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요, 그다음이 널리 아는 것이다.
- 이덕무

(다) 독서에서 가장 크게 걱정할 일은 단계와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글의 본뜻을 가리기에 진정한 이해에 다다를 수 없게 만든다.
- 허목

(라)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로잡는다. 책과 거울이 항상 앞에 있으니 잠시도 바른길에서 멀어질 수 없다.
- 이언적

(마) 책을 읽어 지식을 구하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필요도 없는 것을 넘치도록 읽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정제두

- ① (가)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삼을 경우 자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간을 이해하는 독서 방법을 취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② (나)는 독서를 통해 ‘정신적 기쁨’을 느낌으로써 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독서의 가치를 인식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③ (다)는 ‘단계와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의 폐해를 제시하여 독서의 목적에 적합한 독서 절차를 따라 독서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 ④ (라)는 독서를 통해 ‘내 마음을 바로잡’으며 ‘바른길’을 지향하는 생활의 태도를 제시하여 독서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로군.
- ⑤ (마)는 독서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함을 강조하여 시·공간별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말고 독서의 방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을 말한 것이로군.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5~27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택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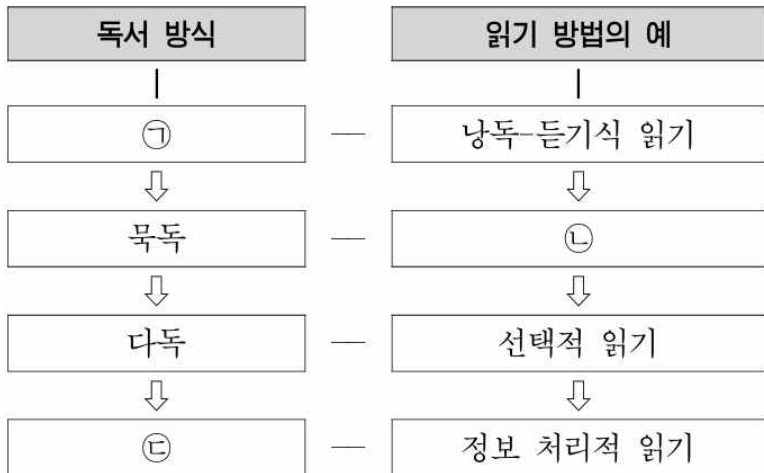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해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 필경사: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3.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① 음독 | 비판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② 음독 | 분석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③ 음독 | 분산형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④ 정독 | 분석적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⑤ 정독 | 비판적 읽기 | 분산형 독서 |

44.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는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묵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45. [A]의 독서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은 묵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돼.
- ②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기와 쓰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원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기기 쉽겠어.
- ④ 기존의 종이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 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어.
- ⑤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